

‘아’와 ‘으’ 사이, 그리고 이상곡(履霜曲)

金完瓚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1.

중세어의 ‘발’과 ‘불’이 각각 ‘발[足]’과 ‘팔[臂]’을 의미하는 것과 같이 ‘아’와 ‘으’는 다른 글자이며 다른 모음을 나타낸다.¹⁾ 기본적인 상식에 속하는 것 같지만, 잠시의 부주의로 혼동 또는 전도시키게 되는 일이 있다.

『국역 악학궤범』(고전국역총서 200)은 엄격한 번역과 정밀한 교열로 칭송을 받는 좋은 책이지만, 동동의 정월장(正月章) 첫머리를 이렇게 해 놓고 있다.

正月 나나릿므른

정월의 나^으룻물은

역시 전공외의 분들이 다루다 보니 이런 일탈이 생기나보다 하는 아쉬움

1) 통속적인 관점에서 의미상의 짝이 되는 ‘발’과 ‘불’을 예로 들었다. 정확히는 ‘발’이 거성인데 반하여 ‘불’이 평성이면서 또 발음이 단순한 ‘르’이 아닌 ‘ㄹ’이어서 딱 떨어지는 짝이 못 된다. 거성의 ‘불’(件)을 쓰면 무난하겠지만 대비성이 떨어진다.

이 섞인다. '나리'는 향가의 표기 '川理'에 대응하며 상고의 어형을 여기까지 기적적으로 지켜와 국어학자들이 애지중지하는 존재인데, 그것을 '나루'(<나루)에 연결시킨 것은 혹 '熊津(公州의 옛 이름)을 일본서기가 koma nari라 주음한 것과의 연상이 작용한 것이나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일이 꼭 문밖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선배 선생님들의 저술에서도 간혹 목격되는 일이 있다. 가람 이병기 선생의 유명한 논문 「時用 鄉樂譜의 한 考察」의 '三城大王'조에는 '일으스실가'는 '일아스실가·빼앗으실가', 즉 '일을 앗으실가'이고… 하는 대목이 들어 있다.²⁾

儺禮歌에서 '山스굿'의 '굿'을 '밖'으로 보고 계신 것으로 보아 가람 선생은 '아'와 '으'를 구별하는 일에 그리 엄격하지 않으셨던 것 같다.('밖[外]의 뜻이라면 '밖', '밖'이 되는 것이 정상.) 하기는 '일으스실가'의 '으'에 대하여서만이 아니라 그 앞줄의 '瘡스스실가 三城大王'의 '스스실가'를 '가시실가'(궁극에는 '씻으실가'로 해석)로 풀이하고 있어 '으'도 '스'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문제가 어학자의 손으로 넘어오면서 (박병채 선생의 주석서) '스스실가'의 '스'의 활용형으로 '끓으실까'로 이해하게 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그렇지만 '일으스실가'의 '으'는 여전히 가람의 뒤를 지켜 「스스실가」는 「아스실가」의 變形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이 노래의 첫 두 줄을 나란히 놓고 한참만 들여다보면 해답은 제절로 떠오르는 것으로 생각한다.

瘡스스실가 三城大王
일으스실가 三城大王

아래 윗줄 다같이 동사는 '스스실가'인데 다만 둘째줄에서는 앞에 '일'의 '르'이 있어 '기'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을 이해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물론 이

2) 이 논문은 본래 『한글』 113호(1955)에 실렸던 것이나 지금은 국어국문학회 편, 『高麗歌謠研究』(1979) 서두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경우는 통속적으로 ‘르’이나 반모음 아래서의 ‘ㄱ’의 탈락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조건과는 상당히 다름을 알 수 있다. 보통은 어간과 어미의 결합에서 ‘ㅎ+고 → ㅎ오, 불+고 → 불오’와 같이 진행되는 것이지만, 특이하게 명사와 동사 또는 목적어와 타동사의 결합에서도 이 현상이 확장 생성된 예를 확인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의의 있는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을 통하여 ‘빼앗다’의 뜻의 ‘앗-이’ ‘으-’으로도 쓰이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큰 다행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실은 우리가 지난 가을호에서 ‘열명’을 다루며 거론하였던 이상곡의 문면에도 어로불분(魚魯不分) 아닌 ‘아으 혼돈’이라 할 예가 하나 들어 있다.

잠^으짜^으간 내니물 너겨
 깃든 열명 길헤 자라오리잇가

‘잠짜간’에 대하여는 양주동 선생 이래로 ‘잠을 따간’이라는 설명이 행하여 오지만, ‘잠’의 모음 때문에 고심한 사람은 많지 않았던 듯하다. 동사로서의 ‘자다[寢, 眠]는 ‘자다’로 통하지만, 명사는 ‘잠’이 아닌 ‘줌’이라야 하는 것을 간과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어원상 관계 있을 것 같은 단어들 사이에 모음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 간혹 있다. 가령 명사 ‘춤’과 동사 ‘츠다’, ‘날[田]과 ‘오늘[今日] 같은 것이 그것이다. [오눙날] 연구자들이 미처 주의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지현영 선생은 ‘잠짜간’의 ‘잠’이 명사일 수 없음을 뚫어 보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분에게 있어 ‘잠짜간’은 ‘자맛[潛]다 간, 숨어 있다가 간, 잠그었다가 간’이라 되어 있거니와, 통석(通釋)에서는 ‘슬그머니 잠졌다가 간 우리 입을 생각하야’라 부연하고 있다.(1947, 『향가여요신석』, 103면)

그러나 그가 생각한 ‘잠기다’의 뜻으로서의 동사는 아깝게도 ‘잠짜’가 아니라 ‘줌짜’라야 한다. 고어사전도 없고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확인할 수는 없는 형편이었을 것 같다.

필자에게 있어서는 ‘잠짜’란 동사 ‘자다’의 지속태(持續態 durative)이다.

향가의 해독에 있어서도 동사 어간에 연결된 '홉'자의 기능을 그렇게 보고 있거니와, 배경에는 제주도 방언에서 관찰한 m요소의 기능에 대한 인식이 있다.

따라서 필자가 이해하는 '잠짜간' '님'이란 '자다가 간' 또는 '자고 있다가 떠나간' '님'이요, 자의적인 추측이 되지만, 헤어진 시간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듯하다.

이임수 교수의 논문이 환기시켜 주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사엽 선생이 일찍이 『국문학사』에서 이 구절을 '자고서 가신'이라 해석한 전례가 있다. '자다'라는 동사를 등장시킨 김사엽 선생의 전공(前功)을 자칫 간과하고 지나칠 뻔하였다. 옛날에 여러번 보았던 책이지만, 의식이 있을 때에만 기록이 읽힌다는 교훈이 새롭다.³⁾

필자를 포함하여 사람들이 김 선생의 견해를 무심히 지나쳐 온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2.

'잠짜간'으로 하여 다시 이상곡으로 화제가 돌아온 것을 계기로 하여 지난 호에서 다루었던 '얼명'과 '깃든'까지를 엄두에 두며 노래 안에서의 '나'와 '님'에 대하여 얼마간 생각해 보기로 한다. 본래 양주동 선생에게 있어 주인공은 유녀(遊女)였다. 1948년도에 나온 『國文學古典讀本』(205면)에는 '所成年代未詳. 淫奔女の 辭'라는 재미있는 표현이 나온다. 지현영 선생도 '淫亂한 이 몸'이라 하고 있다. '아소 님하 훈대 너젓 期約이이다'에 대하여도 '願偕行'이라는 설명이 통용되었던 것을 보면 이 세상에 같이 살아 있는 인물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던 것이 박병채 선생의 해석에서 '님'이 저승 사람이 되며 여인의 신

3) 李壬壽(1988). 『麗歌研究』. 螢雪出版社, 216면. (본래 「履霜曲에 대한 文學的 接近」이라는 제목으로 1981년 『어문학』 41집에 발표되었던 논문이 이 책에 수록되어 있다.) 金思燁(1954). 『國文學史』. 正音社, 266면.

분에 대한 이해에도 변화가 따르게 되었다. (최철; 1966, 259~263 참조.)

박병채 선생의 발상은 아마도 '열명길'을 '저승길'로 생각하면서 이루어진 것이겠는데, 혹시 지현영 선생이 '훈대'를 주석하면서 '同穴'이라는 과한 표현을 덧붙인 것에 이끌린 면이 있지 않을까도 생각된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처럼 '열명'이 '저승' 같은 것을 의미할 수 없다면 '님'을 굳이 저승에 보내 놓아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그 '님'은 방금까지 곁에서 자고 있다가 떠나간 사람, 아직 온기조차 채 가지지 않았을는지 모른다.

옷깃을 열며 내닫는, 그러면서 한편으론 무한한 죄의식에 번민하는 이 여인에게는 역시 양주동류의 '음분녀'라는 관정이 여전히 격에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필자의 소박한 판단이다. 누가 지은 것인지 모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 노래지만, 야도랑(夜度娘)이라는 제목의 시를 하나 소개하고 싶다. '야도랑'이란 倚歌(악곡 이름)로서 전하여 倡妓를 뜻한다.

夜來冒霜雪
晨去履風波
雖得敘微情
奈儂身苦何

밤에 눈서리 무릅쓰고 와
새벽에 풍파를 밟고 가니
정을 얼마 베풀었지만
내 몸의 괴로움 어떠한고.

논리적으로는 '履霜雪'과 '冒風波'일 것이 시이기 때문에 동사 '履(밟다)와 '冒(무릅쓰다)가 그 자리를 바꾸어 문면과 같은 표현이 되었다 하면, 고려가요 이상곡의 제목과 의미가 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린 석석사리'의 '서린'을 '서리는'이라 해석한 남광우 선생의 견해에 동

조하는 것을 보류한 것도 실은 이 '야도랑'이라는 노래를 염두에 두고 있어 '서리[霜]라는 말이 꼭 가사 문면에 등장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인데, '야도랑'이 '이상곡'의 '履霜'의 절대적 전거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이런 쪽에서 그 기원을 구해야 하겠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가령 고려의 한문 가사인 '夜深詞'의 '夜深'에 대하여 다음 시들에서의 '夜深'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과 통하는 논리다.

夜深露氣清 江月滿江山(杜甫)
 夜深月暫皎 亭午朝始暎(常建)
 共待夜深聽一曲 醒人騎馬斷腸迴(戴叔倫)
 風起寒雲斷 夜深關月開(李益)

두보(杜甫)의 시와 한유(韓愈)의 글에는 전거가 없는 글자는 하나도 없다는 말이 있다.(老杜作詩 退之作文 無一字無來處 --- 黃庭堅 與洪甥駒父書). 후일의 신문화운동에 와서는 타파의 표적의 하나가 되었던 것이기도 하지만, 옛 사람들의 글에서는 한 글자 한 글자에 전거를 두는 것을 중히 여겨왔다. 고려가요의 경우에도 특히 한자어의 경우에는 한문 가사에서건 국문 가사에 서건 그런 관점에서의 고구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글과 비슷한 시기에 나올 한 논문에서는 좀더 실증적인 자료들을 이용하여 이런 과제에 접근하는 시도를 보였다.⁴⁾

시가의 제목과 내용의 관계를 일률적으로 논단하기는 어렵다. 특히 중국의 작품들의 경우에는 아예 제목이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偶吟' 같은 것을 제목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패명(牌名, 詞牌나 曲牌의 이름)으로 제목을 삼는 것들도 있어, 자못 다양하나 제목이 직설적이든 비유적이든

4) 줄고(2000). 「高麗歌謠 語彙의 研究」. 『학술원 논문집』 <인문·사회> 제39집.
 특히 처용가에서의 '風入盈庭', '壽命長願' 등에 대하여 새로운 설명을 할 수 있었다고 자부한다.

내용을 대표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우리의 경우, 범위를 좁혀 고려가요의 세계에서 내용과 무관할 수 있는 제목의 존재같은 것은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상곡의 '履霜'의 뜻을 작품 내용에서 구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 해야겠다.

그렇지만 필자는 이상곡을 '履霜操'와 관련시키는 시도들에 대하여는 호의를 가지고 대할 수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제목명에서 끝의 '曲'과 '操'만이 다를 뿐 '履霜'에서 완전한 일치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의 내용 또는 주제라고 할 것이 서로 너무나도 다르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주나라 尹吉甫의 아들 伯奇가 계모의 학대로 들에 쫓겨나 원통함을 노래하고 몸을 던져 죽었다고 하는데, 모두에 아침 서리를 밟는다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履朝霜兮採晨寒), 우리의 이상곡의 분위기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다. 특히 필자의 해석에 바탕을 두었을 때, '저승길'을 매체로 한 '죽음'의 그림자도 강조될 수는 없다. 한유(韓愈)에게도 같은 제목의 노래가 있지만, 역시 윤백기의 죽음을 읊은 것일 뿐, 이상곡의 세계에 근접할 수는 없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어학적 해석의 범위 안에 머물고, 되도록 문학적 명제에 관여하는 것을 삼가려 하고 있지만, 문학적인 작업이 어학적 해석과 무관한 것일 수는 없다는 충정에 이해 있기를 바란다. 문학쪽의 업적에 대해서 읽은 것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거명하여 논의하지 않은 것도 삼가는 뜻이었다고 받아들여 주면 고맙겠다.